

서진석(10/22/1943-11/18/2016)동문을 보내면서

서운석(68)

서진석 동문과 저는 약 55 년전 1962년 3월 서울의대 예과 입학시 처음 만났습니다. 성씨가 같은 대구 "서 씨" 동성동본이지요 항렬도 같아서 우리는 그저 "아...종씨"라고 서로 불렀습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에는 의과대학 우리 동기동문만해도 현재 열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서진석 동문이 동서 남북으로 여러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손잡이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의 특유의 유모어가 우리 모임에 늘 활기를 넣었습니다. 그는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의사였으며 훌륭한 남편이자 가장이었던 사실을 구태여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학창시절을 도리켜보면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공부를 잘 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은 본과때에는 충청남북도에서 오신 학생들이 만든 '청의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바로 이 청의회 모임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현재 LA에 살고있는 윤병인이라는 친구가 "오쭈싸게" 라는 노래를 불러서 한바탕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메리랜드의 임낙중 선배님, 박정식, 이광진, 홍준호, 김상우, 강조웅, 정재성, 김영덕, ... 이런 동문들이 그 모임에 참가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가장 특기했던 일은 그 날 서진석 학생이 "신라의 달밤" 이라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서 모두들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가수 현인도 따라올 수 없는 솜씨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 후에도 서진석 동문은 동창회 모임에서도 가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수 년전에 이곳에 모여서 아호를 지을 때 그의 아호를 미성이라고, 즉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란 뜻에서 '미성 서진석'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우수한 학생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해군군의관으로 지원하여 3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그때 만나게된 미모의 화가이신 송민희 양을 보고 반해서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David, Ann, Danny 즉 2남 1녀와 손자손녀들을 낳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오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서진석 박사는 피부가 깨끗한 미남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최무룡을 닮았는데 그보다 더 미남이었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동기들처럼 군과 무의촌 복무를 마치고 1972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넓은 미국으로 왔으며 버팔로에서 Training을 마치고 Reading Pennsylvania에서 30년간 마취과 전문 명의로사로 따뜻한 인술을 베풀었습니다. 한편 늘 운동을 좋아하고 golf도 즐겼습니다. 더구나 여자 Club Champion을 하시는 부인이 계셔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약 10년 전 2006년 은퇴를 건강할 때 하시고 Virginia로 이사를 와서 손자손녀들의 재롱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부인보다는 못하지만 그도 golf 를 잘 치고 즐겼습니다. 제가 내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저는 한번도 그의 돈을 따본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은 이 곳 Stonewall Golf 장에 합류하셔서 김진수, 방정화 동문을 비롯하여 좋은 여러분들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꼭 '천당에 온 것 같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도 6년 전에 오하이오에서 은퇴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서진석 박사 부부의 덕분으로 쉽게 적응하고 이웃으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열 명의 동기들은 노구를 이끌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직도 신용계 회장이 주동이되어 함께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서진석 동문이 있어서 시작되었고 가능했습니다.

서진석 동문은 약속시간에 남들보다도 늘 일찍 도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8시면 이미 취침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가끔저녁에 모임이 있으면 자야할 시간이라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공지된 사항입니다. 1943년 10월 22일 가을철에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지를 단풍으로 물드리고 붉은 사과와 노란 감을 나무에 열리게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인술을 이 땅에 베풀었습니다. 수줍어하는 코스모스도 시려운 호수가에 피우시다가 짓궂은 찬 바람이 불어오는 2016년 11월 18일 새벽에 파란 하늘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없이 그를 그리워 합니다. 오래 오래 더 같이 살고 싶었던 참으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서진석 동문은 평소에 운전을 빨리 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의 뒤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았는데 그만 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렇게 서둘러 우리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혼은 빠른 속도로 이미 천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쯤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말씀에 의하면 병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도 한국에 계신 장모님을 걱정하였고 또 멀리 California에서 이견일 동기가 주관하는 의대 미주동창회장단을 도와야한다면 이번에도 잊지말고 작년처럼 기부금을 꼭 내라고 아내에게 당부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상의 우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진석 박사는 하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훌륭한 자제분을 양육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인류에 공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와 따뜻한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서진석박사야말로 이곳 아메리카대륙에 뿌리를 내리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의 귀한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육신의 고달픔을 떠나 평안을 취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는 의미로 본인의 줄시를 낭송하고자 합니다.

민들레꽃

서윤석

뽑히고 잘려도
다시 사는 민들레꽃
곧곧한 목줄기에
꽃잎도 고운

밤새 내린 이슬 먹고
산삼도 장미꽃도 아닌 것이
바위틈에서 숨 쉬는
너 착한 민들레야

웬안도 기슭에 흘린
너의 진한 땀 냄새
흰 옷 입은 씨앗으로
노랗게 삼천리 물 들이더니

새털보다 가볍게
바람에 불려와
아메리카 대륙에도 뿌리내린
민들레야 민들레야

The Flower of Dandelion

Seo, Younseok

You, survived from
the pulling and the snapping.
Your straight neck in purity,
your pretty petal of the flower.

Through the night
the life saver,
the dew drops on your lips.
You are not a wild ginseng nor rose,
but you breathe alive
between the crack of rocks.
You, the pretty dandelion.

Your seeds
that dressed in white clothes and
your yellow flowers
that used to stain the three thousand-li,
we smell your sweat here
on the foot of the Shenandoah Mountains.

Your seeds,
lighter than a feather,
were brought to this new land
by the blowing wind and
took root in the ground of America.
You,
the pretty dandelion,
the pretty dandelion.

2016 년 11 월 21 일 저녁 영결식에서

서윤석 드림